

경기전 제례와 제물 진설

최 순 권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I. 진진과 경기전

1. 조선왕조의 진진
2. 태조진진과 경기전

II. 경기전 제례의 변화와 특징

1. 경기전 제례의 역사
2. 경기전의 제례 절차와 공간 활용

III. 경기전 제물 진설의 변화와 특징

1.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대향의
2. 현행 중앙대제

I. 진전과 경기전

1. 조선왕조의 진전

진전은 왕의 진영, 즉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향사하는 일종의 사당을 말한다. 왕의 초상을 신어(神御), 영정(影幀), 진영(眞影), 어진(御眞)이라 하는데, 진영을 모신다고 하여 진전이라 한다. 고려시대에는 도성 내의 경령전(景靈殿)을 설립하여 태조와 4대친의 영정을 모시었고, 개성 부근에는 각 왕마다 원찰(願刹)을 두고 왕과 후비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이것은 송나라 때 신어전(神御殿)과 경령궁(景靈宮)을 설치하여 황제와 후비의 진영을 봉안하였던 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조선초기에도 태조는 부친인 환조를 위해 계성전을 건립하고서 불교식으로 진영을 봉안하고 소찬을 올리었다. 그리고 태종대에는 인소전이라 하여 태조 및 신의왕후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그러나 세종대에는 선왕의 진전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문소전을 건립하여 태조 영정 및 태종의 위판을 모시는 국왕 가묘로서 4대친을 모시는 원묘제를 정립하였다.

이에 조선초기에는 진전으로서, 태조진전(太祖眞殿)인 목청전(穆淸殿), 준원전(濬源殿), 영숭전(永崇殿), 경기전(慶基殿), 집경전(集慶殿)만이 있었다. 목청전은 개성, 준원전은 영흥, 영숭전은 평

양, 경기전은 전주, 집경전은 경주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여 숙절마다 제사를 지냈다.

문소전이 국왕가묘로서 신주만을 봉안하게 되자, 선원전(璿源殿)을 별도로 문소전 뒤쪽에 건립하여 열성조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이 선원전에서는 열성조의 수용과 함께 선원록(璿源錄)을 봉안하였는데, 처음에 전헌(奠獻)의 예는 없었다. 명종 3년에 홍섬이 “선원전에 태조의 영정만도 26축이며, 태종, 세종, 세조 역시 모두 영정이 있고, 덕종, 성종, 중종의 영정은 모두 추사본(追寫本)이 있으며, 또 성종 영정은 처음에는 1축이었다가 후에 개모(改模)하여 9축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선원전은 열성조의 진영을 봉안하는 진전으로만 운영되었다.

조선전기에 태조진전 이외에 세조의 진영을 봉안한 봉선전(奉先殿)이 양주 광릉 근처에 있었고, 성종의 생부인 덕종의 진영을 봉안한 의묘후전(懿廟後殿)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삭망, 숙절, 기신제를 지냈는데, 성종 7년에 덕종의 진영을 선원전으로 이안하면서 의묘후전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서울의 선원전, 개성의 목청전, 경주의 집경전, 평양의 영송전, 양주의 봉선전이 소실되어 폐기되었다. 이에 강릉의 집경전, 강화의 영송전, 봉선전, 남별전(南別殿) 등이 새로 건립되고, 인조 6년에는 원종의 영정을 숭은전(崇恩殿)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 병자호란 등으로 진전 및 영정이 소실되어, 영흥 준원전과 전주 경기전의 태조진영과 남별전에서 봉안하였던 세조와 원종의 진영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숙종 3년에는 남별전을 이건하자는 논의가 있게 되어, 결국 국본전(本殿)을 증건하게 되었고, 숙종 16년에는 영희전(永禧殿)으로 고쳤다. 영희전에는 태조, 세조, 원종의 진영을 봉안하였고, 숙절마다 제사를 지냈다. 한편 강화부의 장녕전에는 숙종의 진영

을, 만녕전에는 영조의 진영을 봉안하였는데, 후에 영조의 진영을 장녕전으로 이안하면서 만녕전은 폐기되었다.

또한 창덕궁의 인정전 서쪽에 새로운 선원전을 건립하여 숙종의 별본(別本)을 봉안하였는데, 정조 원년에 영조 진영을, 순조 2년에 정조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열성조의 진전으로 기능이 확대되었고, 선원전에서는 삭망마다 왕이 친히 분향하고 참배(瞻拜)하거나 기일에는 차례를 지냈다. 이에 영희전에서는 태조, 세조, 원종, 숙종, 영조의 진영을, 선원전에서는 숙종, 영조, 정조의 진영을 봉안하는 진전체제가 마련되었다.

그 후 선원전에는 헌종 12년에 순조와 익종의 진영을, 철종 2년에는 헌종의 진영을, 고종 광무 4년에는 태조의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7실을 이루었고, 영희전도 5실에다 철종 9년에 순조의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6실을 이루게 되었다.

1900년에는 선원전과 이에 봉안되었던 진영이 모두 소실되어 선원전이 다시 건립되었고, 대규모의 각종 이모(移摹) 작업이 이루어졌다. 1907년에는 「제사제도칙령」에 따라 영희전 등 여러 진전의 진영을 모두 선원전에 봉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진전 및 진영은 소실되었고, 현재 경기전만이 태조진전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진전은 『국조오례의』에 길례 속제로서, 속절에 제사를 지냈다. 태조진전의 경우는 관찰사가 초헌관을 맡았는데, 유고시에는 소재읍의 장관이 맡았다. 『국조속오례의』에는 열성조 진전인 영희전에 왕이 2년마다 2월(仲春)에 택일하여 친히 작헌례를 행하였고, 6향 중에 한번은 친향하였다. 그래서 영희전 친향시에 초헌관은 왕이, 아헌관, 종헌관은 의정이 맡았다.

진전의 찬실은 『국조오례의』에 찬탁에 4줄, 협탁에 3줄로 제물을 진설하는데, 협탁에는 탕 3기, 병 6기, 잔 3개를 놓으며, 화통사

존(畫龍沙尊)과 향온(香醕)을 사용하였다. 『국조속오례의』에 영회전 속절의 찬실은 찬탁에 4줄, 협탁에 3줄로 제물을 놓는데, 병 6기, 소탕 2기, 면 1기, 시접 1, 차 1, 잔 3개를 놓는다.

2. 태조진전과 경기전

태조진전은 태조의 수용만을 받드는 진전으로, 국초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에까지 진전을 건립하였다. 서울에는 문소전과 선원전에, 지방에는 영흥에 준원전, 평양에 영송전, 개성에 목청전, 경주에 집경전, 전주에 경기전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한나라 시조인 고조(高祖)의 묘(廟)를 군국(郡國)에 분립한 것과 같이, 종묘 이외에 원묘를 세워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게 하였다. 태조진전이 건립된 곳은 모두 조선을 창건한 태조와 관련된 지역이거나, 역대 왕조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그 건립의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다.

서울에 국가를 상징하는 종묘가 있음에도 또 하나의 사당, 즉 왕실가묘로서 문소전을 세워 태조를 불천지위로서 신주와 영정을 영원히 봉안하게 하였고, 기타 주요 지방에도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게 하여 조선왕조의 정치력을 상징하게 하였다.

먼저 영흥의 준원전은 태조 5년에 함길도 영흥부 순령면 흑석리에 창건되었는데, 이것은 환조의 구저(舊邸)로서 태조가 출생한 곳이었다. 동왕 7년에 태조 진영을 처음으로 준원전에 봉안하였다.

경주의 집경전은 태조 7년에 태조 진영을 봉안하였는데, 세종 24년에 ‘집경전’이라는 전호가 정해졌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이자 고려의 동경이었는데, 경주에는 역대시조묘로서 신라의 혁거세묘가 중사에 편입되어 있다.

평양의 영송전은 평양부 성내 장락궁터에 건립되었는데, 처음에

‘평양어용전’, ‘태조진전’으로 불리다가, 세종 24년에 ‘영송전’이라는 전호가 정해졌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자, 고려의 서경이었는데, 단군묘, 기자묘, 고구려 시조묘가 중사에 편입되어 있다.

개성의 목청전은 태종 18년에 개성부 송인문 안에 있는 태조 잠저(潛邸)시의 구택지에 건립되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서, 고려 태조묘(송의전)도 중사에 편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주의 경기전은 전주부 성 남문 안에 태종 19년에 창건되어, 이 해에 태조의 진영을 봉안하였고, 세종 24년에 ‘경기전’이라는 전호가 정해졌다. 전주는 조선왕실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수도로서, 조경단, 조경묘와 함께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태조진전에는 전관(典官)으로 참봉(參奉) 2원을 두었으며, 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에 제사를 지냈다.

II. 경기전 제례의 변화와 특징

1. 경기전 제례의 역사

경기전의 제향은 열성조의 진전인 선원전과 영희궁, 태조 진전인 영흥의 준원전과 같이 행례되었다. 그래서 속절(俗節)에 지내는 제향과 이·환안 시에 지내는 작헌례(酌獻禮),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朔望) 분향례 등이 있었다.

속절, 즉 정조(正朝; 설),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향은 절향(節享) 또는 절사(節祀)라고 하는데, 정기적인 행사로서 삼헌(三獻) 및 음복례(飮福禮)까

지 모든 제례 절차를 행하였다.

반면에 작헌례는 어진의 이안, 또는 환안 때 지내는 일종의 고유 제(告由祭)로서, 속절에 지내는 제향과 달리 일헌(一獻)에 음복례가 없는 간단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삭망분향례는 제물의 진설 없이 간단하게 분향 및 봉심을 겸하는 의식이었다.

1897년부터는 대한제국이 되면서 “태묘(太廟)의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다 천자(天子)의 의식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등의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라.”¹⁾ 는 전교(傳敎)에 의해 천자(天子)의 예(禮)에 맞게 경기전의 기물과 의장 등도 바꾸어 제향을 지냈다.

그러나 1908년에 제정한 「제사제도칙령」에 의해 경기전에는 1년에 두 번, 청명과 추석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²⁾ 이에 1932년의 『현행제사』 및 1937년의 이왕직 예식과에서 정한 『홀기진설도(筭記陳設圖)』에 의하면 ‘준원전청명추석제향홀기 경기전동(濬源殿 淸明秋夕祭享筭記慶基殿同)’이라 하여 경기전에서도 준원전에 준하여 청명과 추석에 제향을 지내도록 정해졌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는 동지에 한번 제향을 지냈고, 1978년부터는 동지 날씨가 추워서 음력 9월 9일(중양일, 중구일)로 바꾸어 중양절사를 지냈다. 2002년에는 ‘중양대제’로 개칭하였고, 2003년부터는 황제가 친히 행하는 제향 절차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제향을 지내고 있다.

1) 『高宗實錄』 권36, 고종 34년/대한 광무(光武) 1년 10월 20일(양력).

2) 『純宗實錄』 권2, 순종 원년/대한 융희(隆熙) 2년 7월 23일(양력).

2. 경기전의 제례 절차와 공간 활용

① 『국조오례의』 진전 제향

경기전 제향은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俗節享眞殿儀)’에 따라 진행되었다. 진전 제향은 종묘 제향과 달리 속제(俗祭)로 분류되어 있지만, 왕이 직접 행차하거나 관리 등이 파견되어 행해졌다. 그래서 진설의 내용이 국가제사와 다르기는 하지만, 행례 절차는 국가제사에 준하여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속절(俗節 : 名日 ;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에 행하는 진전 제향은 제향일 축시(丑時) 1각(一刻)부터 시작된다. 그 전에 전사(殿司)가 문을 열고 휘장을 걷으며, 제기에 제물을 담아 제사 준비를 한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할 찬자와 알자가 먼저 들어와 4배를 하고 제자리에 서며, 1각이 되어 제향관이 입장하여 먼저 4배를 하면, 헌관이 입장하여 제자리에 나아가 4배를 하는 것으로 제향이 시작된다. 이어 진찬(進饌)과 같은 의미로, 진선(進膳)을 한다. 아마도 이때 미리 진설한 제기의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제물에 먼지 등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지 등으로 싸둔 복지(覆紙 ; 福紙) 등을 벗기는 것으로 진선을 대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초헌례를 행한다. 즉 초헌관이 준소에서 술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는 감잔(監盞)을 한 이후에 신위전에 나와 향을 세 번 올리는 삼상향(三上香)을 하고,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이다. 이어 대축이 신위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축문을 읽고, 이것이 끝나면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俯伏興平身) 제자

리로 내려간다. 아헌례와 종헌례도 초헌례와 같은데, 다만 삼상향과 독축은 하지 않는다.

삼헌이 끝나면 음복례(飲福禮)를 행한다. 초헌관이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술을 조금 마신 후 제자리로 내려가면 초헌관 이하 재위자 모두 4배를 한다. 이어 잠시 후에 다시 헌관이 사신(辭神)의 의미로 4배를 하고 나가면, 전사관 등이 차례로 4배를 하고 나간다. 그리고 제사상의 음식을 물리며(撤饌), 문을 닫고(闔戶) 나간다. 이후에 대축이 축문을 땅에 묻는데(瘞坎), 이때 망예를 헌관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향이 끝난 이후에 대축이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전의 속절 제향이 종묘 제향 등 국가제사와 다른 점은 신관례(晨祼禮)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즉 신을 맞이하는 강신(降神)과 전폐(奠幣) 절차가 없고, 신이 베푸는 수조(受胙)의 절차도 없다. 이러한 연유는 경기전이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진전이고, 진전은 처음에 불교의 영향으로 건립된 속제(俗祭)의 내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俗節享眞殿儀)’를 근거로 하여 제관의 위치와 방향을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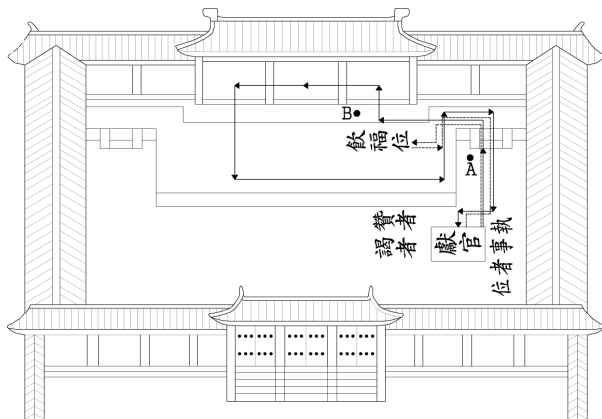


그림 1. 『국조오례의』 진전의 제례 동선도

먼저 헌관위는 위 그림과 같이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음복위를 당상(堂上) 앞 기둥 바깥 근처의 동쪽에 서향으로 하였다. 그리고 집사자위는 헌관의 뒤쪽 조금 남쪽에 서향으로, 찬자와 알자위는 동쪽 계단 서쪽에 서향으로 하였다. 그러나 행례상에 헌관은 서향하여 4배를 하는 반면에 찬자와 알자, 그리고 집사자는 계단 사이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4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와 신위전에 나아가기 전의 준소상(B)은 헌관이 서향하여 술 따른 것을 지켜보며, 준소상의 남북에 집준자(執樽者)와 잔을 드는 집사자가 마주보고 서서 술을 잔에 따르기 때문에 정전 동문 밖에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위전의 제사상에 이르러서는 헌관이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향을 받는 집사자와 술잔을 받는 집사자가 동편에 서향하고, 향로를 올리는 집사자와 술잔을 올리는 집사자는 서편에서 동향하여 선다. 반면에 음복위에서는 준소상과 마찬가지로 헌관은 서향하여 무릎을 꿇고 음복례를 행하고, 음복 잔을 가져오는 대축은 북향하여 술잔을 헌관에게 전해준다.

이러한 행례 동선을 보면, 헌관은 물론 제집사가 정전에 오르내리는 계단은 모두 동쪽 계단이다. 그래서 망예위(望瘞位)를 제외하고 모든 행례의 위치 및 기물은 대부분 동쪽에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헌관 및 제집사의 위치가 모두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 계단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관세위(A)가, 정전 동문 앞에는 준소상(B) 및 음복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동쪽 계단을 통해 오르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조오례의』에는 정전 출입에 구체적으로 동문과 서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전 중앙의 신위를 중심으로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오되, 문 밖에서는 모두 동쪽 계단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경기전의』대향의

『경기전의(慶基殿儀)』대향의(大享儀)는 크게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 내용도 따르고 있다. 영조(英祖)대 『국조속오례의』에 이어 대한제국기 『대한예전』도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의식을 추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열성조의 진전인 영희전(永禧殿)의 6번의 제향에 한번은 왕이 친히 행하는 의례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그전의 진전도 이 제향 의식에 따라 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보문헌비고』(1908년)에도 경기전의 사향(祀享)시일(時日) 및 의절(儀節)은 영희전과 같다³⁾ 고 하였듯이, 그 의례 내용이 모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진전 제향이 『국조오례의』의 제향과는 크게 다를 것은 없으나, 다만 왕이 직접 행하는 제사(親祀)였기 때문에 왕에게 행사를 하도록 청하거나, 왕이 잠시 머무는 소차방이 있어서 행례상에 그에 따른 절차가 추가되어, 『경기전의』 「대향의」에도 그에 따른 일부 행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慶基殿儀』대향의(大享儀)

[『국조오례의』에 있다. 고유제(告由祭) 및 이·환안제도 같은데, 다만 일헌(一獻)에 음복(飮福) 절차만 없다.]

찬자(贊者)와 알자(謁者)가 먼저 정전 배위에 나아가 4배를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제집사(諸執事)는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 배위에 나아간다.

‘4배’를 창(唱)하면, 전사관 이하 모두 4배를 한다. 이어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자 제자리로 나아간다. 헌관은 알자의 안내로 제자리(판위)

3) 『增補文獻備考』권59, 禮考 6, 影殿 慶基殿.

에 나아간다. ‘4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한다. 알자가 헌관의 좌측에 나아가 “유사근구청행사(有司謹具請行事)”라고 고한다.

전사(殿司)는 진膳(進膳)을 한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는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존소(樽所)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세 번 향을 올리며(三上香), 이어 잔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는다.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존소(樽所)에 이르고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작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東階)으로 올라와 존소(樽所)에 이르고 서향하여 선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신위전(神位前)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작을 올리고(奠爵),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음복례(飲福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음복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음복을 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4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하며, 예가 끝나 ‘4배’를 창하면, 헌관은 4배를 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망예위(望壑位)에 나가, 축문 태우는 것을 지켜 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나가고, 전사관과 제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와 4배를 하고 차례대로 나간다. 찬자와 알자도 모두 4배를 하고 나간다.

전사는 정전 안의 제사상을 물리고 문을 닫고 나간다.

이상의 내용을 『국조오례의』 「속절향진전의」와 비교해 보면, 다만 흘기처럼 행례 절차를 자세하게 적었고, 제향 내용도 구체적인

로 언급하고 있다. 즉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 망료 등으로 행례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경기전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헌관 4배 이후에 ‘청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제사처럼 왕에게 행사를 시작하도록 청하는 의식으로,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親享永禧殿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전의 제향은 속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잔(盞)을 사용한다. 『경기전의』 진설도에는 3기의 은잔(銀盞)이 표기되어 있지만, 홀기 내용에는 헌작(獻爵)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국조속오례의』 「친향영희전의(親享永禧殿儀)」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친향영희전의」 진설도에도 3기의 잔이 표기되어 있지만, 행례상의 의주에는 헌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조오례의』에서는 헌관이 음복례 이후에 정전을 나가는 데, 『경기전의』에서는 망료 이후에 정전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국조오례의』에서는 음복례 이후에 제사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여겨 헌관 이하 모두 사신(辭神)의 예를 행하고 나가는 반면에, 『경기전의』에서는 음복례 후에 망료까지 헌관이 행하기 때문에 전사관 이하 사신의 예는 망료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망예의 경우도 『국조오례의』나 『국조속오례의』에서는 단지 축문을 감(坎)에 묻었던 것인데, 이 절차도 모든 의식이 끝난 이후에 행해졌다. 그러나 『경기전의』에서는 음복례 이후의 절차로 ‘가료(加燎)’라고 하여 축문을 태우는 망료(望燎)를 행하였으며, 이 의식이 끝난 이후에 헌관 이하 정전을 나가고, 이어 제상을 물리고 문을 닫고 나간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전의』 「대향의」에 있어서 제관의 위치와 방향을 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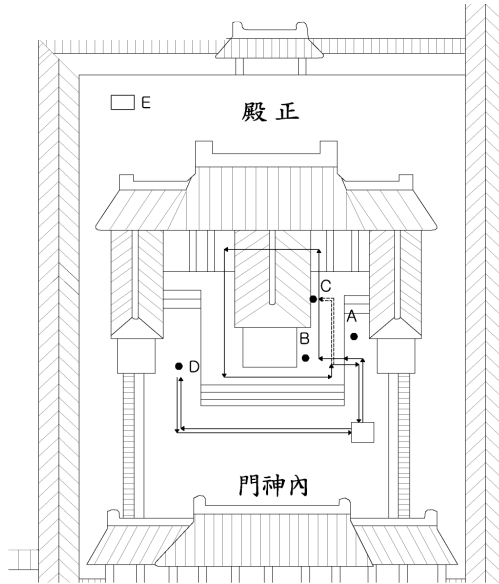


그림 2. 『경기전의』 경기전의 제례 동선도

『경기전의』에는 헌관위 및 음복위, 집사자위, 찬자와 알자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행례 내용과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먼저 초헌관이 관세위에 와서 손을 씻고, 이어 동쪽 계단을 통해 준소에 나아가 서향한 것으로 볼 때, 관세위(A)는 동쪽 계단 아래에, 준소(B)는 동쪽 계단 위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때에는 정자각이 정전 앞에 있고, 정자각 좌우로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쪽 계단을 통해 정자각을 오르내렸을 것이다.⁴⁾

4) 『國朝五禮儀』에는 “제집사가 동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온다.”고 하였는데, 『國朝續五禮儀』에는 “헌관은 동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오며, 나머지는 모두 서쪽 계단으로부터 오르고 내려온다.”고 하였다. 하지만 『大韓禮典』에는 『國朝續五禮儀』와 같은 내용임에도 이러한 조항이 빠져 있다.

반면에 망료에는 예감(E)⁵⁾이 뒤뜰 서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망료위(D)는 정자각 서편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또한 『경기전의』에는 헌관과 제집사가 어느 방향에서 4배를 하는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조오례의』나 『국조속오례의』처럼 헌관은 서향하여 4배를, 찬자와 알자 그리고 집사자는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4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준소상이나 제상, 음복위의 경우에 제관의 위치 및 방향도 『국조오례의』와 마찬가지로 었을 것이다. 하지만, 행례 동선의 경우는 정전 앞에 정자각이 나와 있고, 준소상은 동쪽 계단 위 정자각 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자각 동쪽 계단을 주로 오르내렸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좀 더 정방형의 형태로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 현행의 중앙대제의 동선을 보더라도 주로 정자각 동쪽 계단을 통해 오르고, 정전의 경우도 정전 중앙의 신위를 중심으로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동쪽 계단으로 내려오기 위해 정자각의 기둥을 돌아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경기전의』 「대향의」 동선도 주로 정자각 동쪽 계단 및 정전의 동문과 서문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현행 중앙대제

경기전의 속절 제향은 1908년에 「제사제도칙령」에 의해 1년에 2번, 청명과 추석에 지내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이왕직 예식과에서 정한 1932년의 『현행제사』 및 1937년의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를 보면, 경기전은 준원전에 준하여 제향 홀기 및 진설도가 정해졌다. 이러한 진설도 및 홀기의 내용은 종전의 『국조오례의』나

5) 『慶基殿儀』殿宇儀에는 ‘望瘞石函’으로 되어 있고, 『肇慶廟慶基殿圖形』에는 ‘燒祝石’으로 되어 있다.

『경기전의』와 달리, 진설 및 행례의 내용이 많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현행의 중앙대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먼저 1937년에 이왕직(李王職) 예식과에서 정한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의 ‘청명추석제향홀기(淸明秋夕祭享笏記)’를 살펴 보면서 현행의 중앙대제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다.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의 ‘청명추석제향홀기(淸明秋夕祭享笏記)’ 행례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집사(諸執事)는 정전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끝나면 각자의 자리에 나아간다.

전사(殿司)는 정전에 올라 휘장을 만든다. 헌관(獻官)은 알자의 인도 하에 배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정시에 이르면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전사는 진선(進膳)을 한다.

작헌례(酌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끝나면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 준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술을 따른다(酌酒). 이어 향안(香案)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세 번 향을 올리고, 잔을 집어 잔을 바친다. 대축(大祝)은 뚜껑을 열고 손잡이가 서쪽으로 가도록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다. 헌관은 옆드렸다가 일어나고 조금 물렸다가 무릎을 꿇는다. 대축은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다.

維某年歲次

孝玄孫 諱

謹遣

敢昭告于

太祖至仁啓運應天肇統廣勳永命聖文神武正義光德高皇帝

伏以節序易流當茲令辰采增感慕聊載明禋謹以清酌

庶羞式陳明薦尙

饗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서문으로 나오며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 준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술을 따른다(酌酒). 이어 향안(香案)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잔을 집어 잔을 바친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조금 물렸다가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서문으로 나오며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 준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술을 따른다(酌酒). 이어 향안(香案)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잔을 집어 잔을 바친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조금 물렸다가 무릎을 꿇는다.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서문으로 나오며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음복례(飲福禮)를 행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쪽 계단으로부터 올라 음복위에 이르러 무릎을 꿇는다. 대축은 준소에 나아가 복주(福酒)를 따르고, 음복위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전한다. 헌관은 잔을 받는다. 대축이 빈 잔을 받아 준소에 되돌려 놓으면,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알자의 인도 하에 정전을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대축이 젓가락을 내리고 뚜껑을 덮으면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망료(望燎)를 한다.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간다. 축문을 태우라고 하면 대축은 축문을 들어 요소(燎所)에서 태운다.

예가 끝나면(禮畢), 헌관은 알자의 인도 하에 나가고, 제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와 국궁 4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펴고 나간다.

전사는 정전에 올라가 휘장을 내리며 제사상의 음식을 물리고 이내 물린다.

이 홀기 내용은 앞의 『경기전의』내용과 비교해서, 진설도(준원 전경기전청명추석제급작헌례)에 수라(水刺)와 차(茶)가 놓이며, 이

에 따라 행례 절차 가운데 계개정저(啓蓋正箸)와 철저합개(撤箸闔蓋)가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종묘 제향과 달리 희생이나 날 음식 등이 진설되지 않으면서, 일반 집안 제사와는 제물이 다른 진설 내용에서, 능 제향과 같이 속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전 신위전의 휘장은 『국조오례의』 및 『대한예전』등에서는 행사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이 홀기에서는 제집사가 4배를 하고 제자리로 나아간 후, 헌관이 제자리로 들어오기 전에 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전의』 진설도 및 홀기 및 진설도에는 모두 잔으로 표기되어 있어, 여전히 잔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홀기진설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1932년의 『현행제사』에 종헌례 때 행하는 진다(進茶) 절차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진다 내용은 『현행제사』에만 있는 내용으로, 차가 진설되면서 행한 절차로 여겨지지만, 이에 이르러 삭제되었다.

이러한 『홀기진설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행 경기전의 중앙대제도 행해지고 있다. 2002년의 홀기를 보면, 산릉 기신제와 같이 면, 수라, 시접 등이 진설되며, 잔 대신에 작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계개정저(啓蓋正箸)와 철저합개(撤箸闔蓋)의 행례 내용 가운데 순가락에 대한 행례를 더 추가하였다. 『홀기진설도』에도 수라가 진설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행례가 없다. 하지만 2002년 홀기에는 초헌례 시 수라기에 순가락을 꽂고(插匙), 음복례 후에 순가락을 물리는 예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에서는 음복례 후 헌관이 4배를 하고, 이어 사신(辭神)의 의미로 잠시 동안 머문 후에 다시 헌관이 4배를 하거나, ‘예필’이라 하여 예가 끝난 것으로 헌관이 4배를 하는 것에 반해, 중앙대제에서는 『홀기진설도』의 내용을 따라 사신의 의미로 순가락과 젓가락을 물리고, 뚜껑을 덮은 후에 헌관

및 참반원이 4배를 하고 있다.

또한 『홀기진설도』에서는 신위전의 휘장을 헌관이 판위에 나오기 전에 하고 있는데, 중앙대제에서는 헌관과 참반원이 제자리에 나온 후에 정전의 문을 열고 휘장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홀기진설도』에서는 망료례가 끝나 헌관 및 제집사가 나간 후에 신위전의 휘장을 내리고, 제사상의 음식도 물리며 퇴장을 하는데, 중앙대제에서는 망료례가 끝나 헌관에게 예필을 고하면 바로 신위전의 휘장을 거두고 문을 닫는다. 이에 제집사 및 집례, 찬의는 문을 닫은 채 4배를 하고, 나중에 제사상의 음식을 물리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

『홀기진설도』에서는 잔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앙대제에서는 작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경기전의』 「대향의」 및 『대한예전』에도 나타난 것이지만, 대한제국기의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제기를 바꾸면서 잔 대신에 작을 사용하거나, 현행 능 제향과 같이 제기를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02년의 홀기 내용도 2003년부터 황제가 직접 행하는 홀기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002년에 비해 초헌관의 제복이 황제가 입는 12장복 및 12류의 면류관으로 바뀌었고, 행례 내용도 그에 준하게 일부 개정되었다.

2003년부터는 먼저 찬의(贊儀)가 헌관을 인도하는 것에서, 초헌관은 찬례(贊禮)가 안내하며, 이하 아헌관, 종헌관은 찬의가 인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위전의 휘장을 거두는 것도, 종전의 헌관 및 참반원이 제자리에 나아간 후에 문을 열고 휘장을 거두는 것에서, 2003년부터는 아헌관과 참반원이 모두 제자리에 나아간 후, 초헌관이 판위에 나아가기 전에 행하고 있다. 또한 찬례가 초헌관에게 나아가 행사를 청하면, 초헌관이 먼저 4배를 하고, 이어 아헌관, 참반원 순으로 4배를 하며, 초헌례가 끝난 후에 초헌관이 잠시 머물도록 한 소차방도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행례의 변화는 모

두 황제의 친행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외에 종헌례가 끝난 이후에 초헌관이 다시 관위에 나와 헌작 후의 배례의 의미로 4배를 하고, 아헌관과 종헌관도 차례로 4배를 한다. 그래서 음복례 후에 강복위하여 4배를 하지 않고, 바로 사신의 의미로 순가락과 젓가락을 물리며 수라기 뚜껑을 덮은 후에 차례로 4배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예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여겨 신위전의 휘장을 내린 이후에 망료례를 행하고 있다.

현행 『중양대제』 흘기에 나와 있는 「제관위치도」를 보면, 대략의 제관 위치 및 동선을 알 수 있다. 헌관의 위치를 보면, 초헌관의 소차방은 동익랑에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아헌관과 종헌관은 동월랑에서 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초헌관은 관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4배를 하고(하지만 2006년에는 서향으로 4배를 하였다.), 아헌관과 종헌관은 서향하여 4배를 한다. 반면에 제집사와 참반원은 북향하여 4배를 한다.

흘기에는 먼저 초헌관이 관세위에 와서 손을 씻고, 이어 동쪽 계단을 통해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였다가 신위전에 나아가며, 헌작이 끝나면 서문을 통해 나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에 정자각의 동쪽 계단을 통해 올라와 정자각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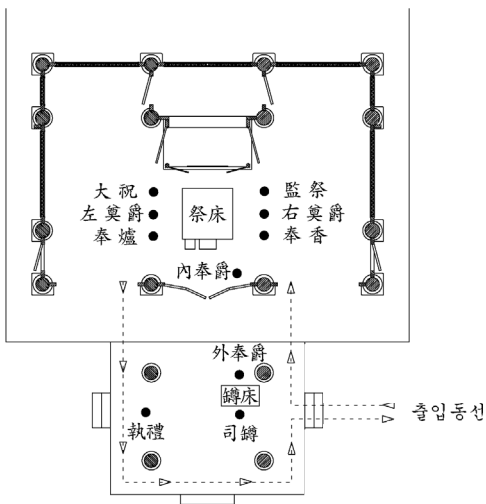


그림 3. 『중양대제』 정전과 정자각 내부의 제관 위치도

한 준소 앞에 서향하여 서며, 다시 동문을 통해 신위전에 들어가는 데, 이 때 작(爵)은 집사자를 통해 신문으로 들어간다. 독축 후에 헌관은 다시 서문을 통해 나오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정자각 기둥을 돌아 다시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소차방으로 간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이와 같은 동선으로 이동하는데, 다만 소차방으로 가지 않고, 동월랑의 제자리로 돌아온다.

음복례의 경우도 초헌관은 소차방에서 출발하여 다시 정자각의 동쪽 계단을 통해 올라 정전 앞 동쪽에 위치한 음복위에 서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대축관은 준소에서 음복작을 받들어 초헌관의 왼편에서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 음복작을 전한다. 음복례가 끝나면 초헌관은 다시 정자각 동쪽 계단을 통해 관위로 가서 4배를 하고, 이어 망료례를 위해 정자각 서편에 마련한 망료위에 가서 북향하여 선다. 망료례가 끝나면 다시 관위로 돌아왔다가 다시 소차방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 이와 같이 현행의 중앙대제의 행례 동선도 『경기전의』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정방형의 형태로 동쪽 계단을 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Ⅲ. 경기전 제물 진설의 변화와 특징

1.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대향의

경기전의 제물은 처음에 경기전이 속해 있는 전라도의 53개 읍에서 분정(分定)하여 마련하였다. 그러나 1658년(효종 9년)에 각 읍의 폐단을 우려해 임시로 전주, 나주, 광주, 남원 등 4도관(都官)이 돌아가면서 제물을 바치게 하였고, 1780년(정조 4년)부터는 전

적으로 전주부에서 제물을 담당하게 하였다.⁶⁾

경기전의 제향은 속제(俗祭)이기 때문에 제물도 종묘 제사와 다르게 진설되었다. 처음의 제물 내용은 1447년(세종 29년)에 상정되었다. 이 때 여섯 번 속절 제사(별제)의 제탁(祭卓)에는 화초가 있었는데, 첫째 줄에 중박계(中朴桂) 4기,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 5기, 셋째 줄에 다식(茶食) 5기, 넷째 줄에 실과 6기를 진설하였다. 그리고 면협탁에는 화초가 없었는데, 첫째 줄에 떡 4기, 둘째 줄에 면, 잡탕 등 5기, 셋째 줄에 잔(盞) 3개를 놓았다.⁷⁾

이것은 『국조오례의』에 속제의 진설로 정해졌는데, 「문소전 의묘 사시속절진설도(文昭殿懿廟四時俗節陳設圖)」를 보면, 왕의 기신(忌辰) 및 진전의 속절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병 6기, 탕 6기인데, 진전에는 병 6기, 탕 3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탕은 3기는 각색 탕선(湯膳)으로 육선(肉膳)을 겸하되 정해진 수도 없다고 하였다. 문소전의 경우 처음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소탕(素湯) 위주였는데, 이에 육선까지 포함 된 것이다. 그리고 향온을 담은 사준은 문 밖의 좌측에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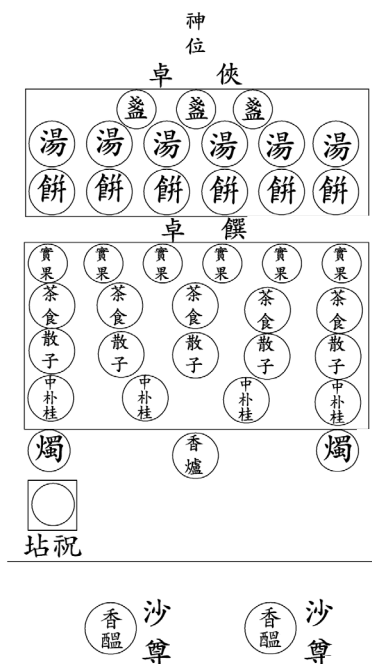


그림 4. 문소전 사시속절 진설도(『국조오례의』)

6) 『宗廟修改膳錄』 권3, 庚午(1780년) 2월 6일.

7) 『世宗實錄』 권118, 세종 29년 11월 2일(신묘).

는데, 이에 만루대(萬鏤臺) 잔 3개를 준소에 함께 놓는다고 하였다. 세종대에 비해 찬탁의 제물과 같으나, 면협탁의 경우에는 떡이 4기에서 6기로 늘었고, 면, 잡탕 등 5기에서 탕 3기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제물의 진설은 영희전의 속절 진설도에서 약간 변화되었다. 즉 『국조오례의』의 탕기 3기에서 『국조속오례의』에서는 2기의 탕기 이외에 면기, 다기, 시접 등이 진설되었다. 이 때 2기의 탕기는 소탕(素湯)이다. 이러한 제물의 진설은 『경기전의』에서 2기의 탕기와 1기의 면기로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경기전의』에서는 홍산자와 백산자의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였고, 다식도 황다식, 백다식으로 구분해 놓았다.

『경기전의』의 제물봉상식(祭物捧上式)을 보면, 제향 1일전에 제물을 만든 후에 가자(架子)에 실어 서익랑 홍장(紅幘) 안에 보관하며, 전내에 2개의 탁자를 설치하여 상건(床巾) 및 좌면지(坐面紙)를 깔고, 좌우로 각각 촛대상을 설치한다. 그리고 제향일 삼경(三更 ; 23시-01시) 오점(五點)에 서익랑 홍장 앞에 나아가 봉한 것을 열고, 사경(四更 ; 01시-03시)에 이르면 촛불을 켜고 진설을 한다고 하였다.

이 때 진설의 내용을 보면, 『국조오례의』 및 『국조속오례의』와 달리 협탁과 찬탁의 구별 없이 제1행에는 중계(中桂) 4좌(坐), 제2행에는 홍산자는 3좌, 백산자는 2좌, 등 산자(散子) 5좌(坐), 제3행에는 황다식은 3좌, 백다식은 2좌 등 다식(茶食) 5좌(坐)를 놓았다.

제4행에는 각색 실과(實果) 6좌(坐)를 진설하였다. 이전에는 대조(大棗 ; 대추), 황율(黃栗 ; 밤), 피진자(皮榛子 ; 개암, 후에는 은행을 대체함), 건시(乾栝 ; 귤감), 피비자(皮榲子 ; 비자), 피백자(皮栢子 ; 잣)를 놓았는데, 신정식(新定式)에는 백자(栢子 ; 잣), 협백자(挾栢子 ; 이전의 皮栢子), 비자(榲子), 진자(榛子 ; 개암), 대조(大棗 ; 대추), 황율(黃栗 ; 밤)을 놓았다. 이전에는 껌질인 채로 놓

았는데, 신정식에서는 모두 겹질을 벗기고 진설하였으며, 건시 대신에 백자(栢子)를 놓았다.

제5행에는 절병(切餅), 유병(油餅), 자박(自朴), 두단자(豆丹子), 당고(唐餠), 쌍화(雙花) 등 각색 병(餅) 6좌(坐)를, 제6행에는 면(麵) 1기(器), 포탕(泡湯) 2기(器), 제7행에는 은배(銀杯) 3좌(坐)⁸⁾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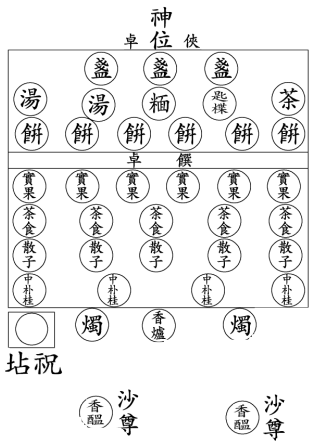


그림 5. 영희전 진설도(『국조속오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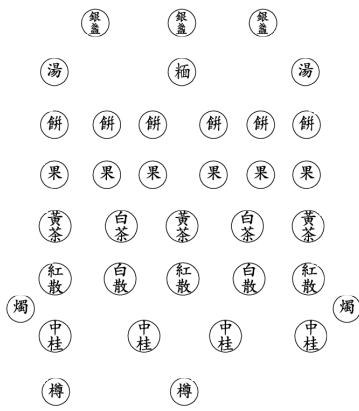


그림 6. 진설도(『경기전의』)

2. 현행 중앙대제

경기전의 속절 제향이 1908년에 「제사제도칙령」에 의해 1년에 2번, 청명과 추석에 지내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제물 내용도 개정되었다. 1908년의 『제물등록』에 경기전의 청명과 추석제의 제물과

8) 『慶基殿儀』祭物捧上式.

고유제 때의 제물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밀과(蜜果)는 14기(器)로, 중박계(中朴桂) 4기, 백산자(白散子) 3기, 홍산자(紅散子) 2기, 전다식(煎茶食) 3기, 백다식(白茶食) 2기인데, 『경기전의』의 제1행, 제2행, 제3행의 내용을 합한 것과 같다.

그리고 실과(實果)는 6기로, 황율(黃栗; 밤), 대조(大棘; 대추), 실백자(實栢子; 잣)⁹⁾, 실호도(實胡桃; 호도), 실비자(實榲子; 비자), 건시(乾栢; 꾀감)인데, 건시의 경우 예전에는 백자(栢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경기전의』의 신정식(新定式) 내용과 같이 껍질을 깬 건과(乾果)를 진설하였는데, 이에 제외되었던 건시가 다시 포함되어 있다. 떡은 6기로, 자박(煮白), 경단(敬團)¹⁰⁾, 상화(霜花), 절병(切餅), 당고(唐飴), 유병(油餅)이다. 이것도 『경기전의』의 제4행과 제5행과 내용은 같으나,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이다.

또한 이때에 제주(祭酒)도 향온(香醢)에서 청주(淸酒)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6행에는 세면(細麪; 국수) 1기, 탕(湯) 2기를 진설하는데, 『경기전의』의 포탕(泡湯) 대신에 전증(煎蒸)과 백증(白蒸)으로 구분해 놓았다.¹¹⁾

이러한 경기전의 제물의 진설은 1932년 『현행제사』 및 1937년의 『홀기진설도』에 와서 크게 변화되고 있다. 『경기전의』에는 총 7행으로 제물을 진설하는데, 『현행제사』 및 『홀기진설도』에는 총 6행

9) 『祭物膳錄』(1908년) 慶基殿濬源殿告由祭每殿計에는 ‘협백자(挾栢子)’으로 되어 있다.

10) 『祭物膳錄』(1908년) 慶基殿濬源殿告由祭每殿計에는 ‘두단(豆團)’으로 되어 있다.

11) 『祭物膳錄』(1908년) 慶基殿 一位 二次祭(春秋)濬源殿 同.

圖設陳祭夕秋明清殿基慶殿源瀋



그림 7. 『현행제사』(1932년)

으로 제물을 진설하고 있다.

『현행제사』에는 제1행에 중계(中桂) 3기를 가운데에, 그 좌우에 홍동백서(紅東白西)로 동쪽에 홍산자(紅散子) 2기를, 서쪽에 백산자(白散子) 2기를 진설하였으며, 제2행에는 서쪽으로부터 건율(乾栗; 밤), 호도, 비자, 송실(松實; 잣), 대추를 가운데에, 동쪽에 전다식(煎茶食) 2기를, 서쪽에 백다식(白茶食) 2기를 진설하였다. 이에 중계는 4기에서 3기로, 산자는 5기에서 4기로, 다식은 5기에서 4기로 줄어었다.

그리고 제3행에는 백청(白淸)을 가운데에, 동쪽에 자박병(煮朴餅), 상화병(霜花餅), 유병(油餅)을, 서쪽에는 절병(切餅), 남시병(南是餅), 유사병(油沙餅) 등 6기의 떡을 진설하였다. 제4행에는 잡탕(雜湯), 생선탕(生鮮湯), 포적(泡炙), 초강(醋薑), 생선적(生鮮

炙), 백증(白蒸), 전증(煎蒸)을, 제5행에는 시점과 면(麵), 차(茶)를, 제 6행에는 잔 3개를 진설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제3행의 백청(白淸)과 제4행의 초강(醋薑)과 잡탕(雜湯), 생선탕(生鮮湯) 등의 탕과 포적(泡炙), 생선적(生鮮炙)이다. 이것은 『국조오례의』 및 『경기전의』 진설도에도 나오지 않는, 일반 집안 제사에서만 나오는 제물이다. 즉 백청은 꿀 또는 조청으로, 떡의 부속으로 놓던 것이며, 초강도 『주자가례』의 초(醋)의 진설에서 기인하여 이 역시 적과 탕 사이에 진설되어 있다. 그리고 탕도 소탕이 아닌 잡탕과 생선탕이 진설되고 있으며, 적도 처음으로 이때부터 진설되고 있다.

『홀기진설도』도 위의 『현행제사』와 같이 6행으로 놓는데, 일부

제물 내용 중에 가감이 있으며, 진설 위치가 조금 다르다. 즉 1행과 2행은 같으나, 3행은 개장(芥醬; 간장)을 중심으로 동쪽에 길경채(桔梗菜; 도라지), 청태채(靑苔菜; 파래), 추이채(椎耳菜; 표고버섯) 등 채소 3기와 서쪽에 포적(泡炙), 백증(白蒸), 전증(煎蒸) 등 3기를 진설하였으며, 제4행에는 백청과 떡 6기 이외에 잡탕을 진설하였다. 그리고 제5행에는 시점과 수라(水刺), 차(茶), 면(麵)을, 제6행에는 잔 3개를 진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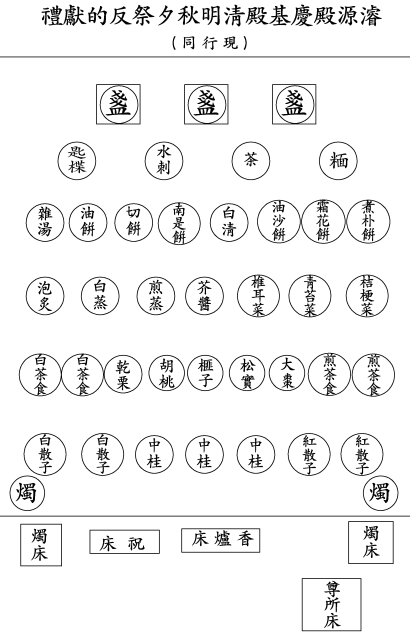


그림 8. 홀기진설도(笏記陳設圖)』(1937년)

여기서도 주목되는 것이 개장과 채소, 그리고 수라이다. 개장은 일종의 간장으로, 우리나라 제사상에서만 나물 사이에 진설하던 것인데, 이 때 길경채 등 채소를 진설하면서 민간의 집안 제사와 같이 개장을 진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큰 제물의 변화는 바로 수라의 진설이다. 이러한 제물의 변화로 인하여 행례상에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계개정저(啓蓋正箸)와 젓가락을 물리고 뚜껑을 덮는 철저합개(撤箸闔蓋) 절차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때 수라에 숟가락을 꽂는 삽시(插匙)와 철시(撤匙)의 절차는 행해지지 않았다.

위의 진설 내용을 보면, 현행의 중앙대제는 『홀기진설도』의 진설 내용을 주로 따르고 있는데, 일부 내용만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 능 제향의 진설 내용과도 같은데, 제1행에는 백산자(유과), 백다식(잡쌀과 조청으로 만든 다식), 약과, 각약과(백다식을 기름에 튀긴 약과), 흑다식(검은 참깨와 조청으로 만든 다식), 홍산자(붉은 유밀과)를, 제2행에는 황율(밤), 추자(호도), 비자, 송실(잣), 대조(대추)를 진설하고 있다. 제3행에는 포적(두부적), 해태(김), 개장(간장), 길경(도라지나물)을, 제4행에는 잡탕(국)과 백청(꿀) 및 병(떡)을, 제5행에는 면(국수), 수라(밥), 시접을, 제6행에는 작 3개를 진설하고 있다.

현행 중앙대제에는 『홀기진설도』의 제1행과 제2행의 산자와 다식, 약과를 합하여 제1행으로 하되, 홍동백서의 의미로 진설하고 있다. 즉 중계 3기 대신에 약과 3기로 대체되고, 홍산자 2기는 1기로, 백산자 2기는 1기로 축소되었다. 실과의 경우는 그대로 5기이지만, 단지 호도(胡桃)만이 비슷한 추자(榧子 ; 가래)로 바뀌었으나, 현재는 호도로 대신하고 있다. 제3행에는 백증, 전증, 추이채만 빠지고, 개장을 중심으로 포적(두부적), 해태(김), 도라지나물을 놓고 있으며, 제4행에는 잡탕과 백청은 그대로 두고, 떡만 6기에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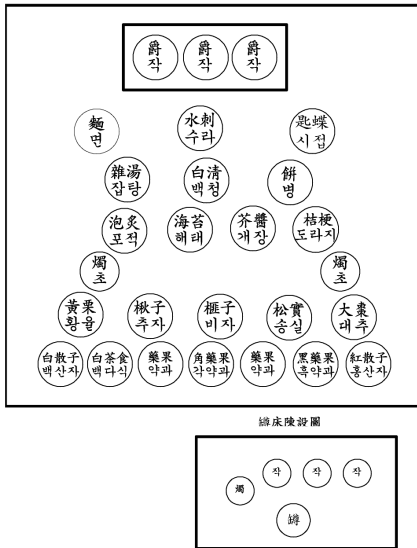


그림 9. 현행 경기전의 중양대제 진설도

기로 축소하였는데, 대신에 껌질을 간 팔고물의 시루떡을 곁었다. 제5행에는 수라를 중심으로 서편에 면을 동편에 시접을 진설하였다. 『홀기진설도』에 비해 차가 빠졌고, 면의 경우 동편에서 서쪽으로 옮겨 진설하였다. 이것은 집안 제사에서 면(국수)을 서편에 진설하는 것과 같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수라와 면을 진설함에 따라 행례 절차에

순가락을 밥에 꽂고 순가락을 물리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제물 진설의 변화로 인하여 경기전의 제향도 속제에 맞추어 행례 절차도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